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14일)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천년고찰서 펼쳐진 요가 한마당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둔 6월 13일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산사에서 진행하는 요가체험을 위해 300여 명의 전남 요가 동호인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와 구례군체육회, 전남도 요가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요가 대축제에는 전문 요가인을 비롯해 스님, 일반인 등이 참석해 각황전 앞 마당을 가득 매운 가운데 심신을 단련했다.

글=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진제공=화엄사

애국가 수화 '하느님' 시정 요구 본격화

원심회, 문광부 등에 시정 요청 공문

한국표준수화에서 애국가 가사 중 '하느님이 보우하사'의 '하느님'이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화(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本紙 기사(1344호 참조)와 관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어'의 부재에 있다는 점에서, 애국가 수화 뿐 아니라 수화 전반을 두루 살펴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될 전망이다.

원심회(회장 김철환)는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하느님'의 수화표현을 시정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원심회는 "'하느님이 보우하사'에서 '하느님'이 기독교 수어 '하나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고 종교 자유에도 어긋난다"며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느님은 어원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기 때문에 애국가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수화가 사용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심회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특정 종교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인 '하나님'의 수화를 사용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이 애국가의 소절에 특정 종교의 색채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해당 공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원래 의미의 '하느님'에 맞는 수화단어를 만들 것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공식 '수화로 하는 애국가'에서 '하느님' 단어를 의미에 맞도록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원과 관계자는 "공문 접수에 따라 요청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부검토 전이라 현재로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내부검토에 이어 전문가 자문, 한국농아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검토·논의를 통해 시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교 수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광림사연화원(이사장 해성)과 원심회는 공동으로 수화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애국가 수화 개선은 물론, 불교수화 등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올 8월부터 검토작업을 진행해 11월경 검토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이번 사안은 수화사전에 '하느님'의 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불교계

대체어 추가 등 개선 요구
국립국어원, 내부검토 추진
광림사연화원과 공동으로
8월부터 수화 타당성 연구

특히 스님들 중에서도 국가공인통역사가 더 많이 배출된다면 공식 수화에 혹시라도 더 있을지 모를 문제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원심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애국가 제창 시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원심회는 "불교를 믿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로 된 애국가를 제창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적 영역이기에 중립적인 수어사용의 책무가 있기에,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통명사로서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화단어가 추가로 정립돼야 한다"며 "한국수화사전 개정판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이라도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GREEN부디즘' 위해 불교계 뛴다

각 종단 기후위기 대응 천명, 사업 진행

종단협 5개년 계획 수립
출재가전문위 구성 예정
학계 장기세미나 시작해
동련, 지도자교육에 나서

송지희 · 노덕현 기자

전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불교계가 범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기후·환경위기에 따른 중장기적 사업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최근 조계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의제를 선언한 데 이어, 종단협이 기후위기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함에 따라 불교계가 앞으로 기후위기 의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협은 이날 신규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담은 기후환경위기 사업을 확정했다. 기후·환경위기에 따른 지구촌 재앙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불교계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며, 첫해인 올해 사업예산은 1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출·재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1~3단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운동과 선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종단별 활동사를 구성해 탄소 중립과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불교계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를 주제로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교적 이념에 부합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천 활동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2단계 계획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구는 하나' 제하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분야 연계를 추진한다. 3단계는 사찰환경 개선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찰 환경을 활용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활동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이 선출됐으며 승가위원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과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엄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사무처장 진경 스님(당연직)이 선임됐다. 재가위원인 학계전문인사와 불교환경 활동가 5명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위임해 추천키로 했다. 첫 회의는 7월 경 개최키로 했다.

불교학계에서는 종단 차원의 노력에 발맞춰 이론 정립에 나섰다. '제1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를 주제로 목요강회를 진행해 온 한국불교학회는 6월 17일 제2기 기후위기와 불교지혜 세미나를 시작했다. 서울 중구 금호트윈오피스텔에서 9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3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의 현실과 그 영향, 사회전환을 위한 담론의 준비 및 불교철학의 역할 모색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현장에서 알릴 지도자 양성도 시작됐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6월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ABC로 그린하루-환경으로 생각하는 인욕과 정진'을 주제로 70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면·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회에는 80여 명 지도자들이 참가해,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에게 생활에서 환경문제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법을 배웠다. 강의는 '나비의 그린라이프 스토리'와 'R.U.Doing'으로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 정무 스님은 "우리 삶 속 환경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과 지혜로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